

文 “굳혔다”朴 “엎었다”李 “대접전”... 호남 당심잡기 ‘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8일)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권 주자 진영에서는 지지표 결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5~6일 실시되는 2차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기 위해 각 당권 주자 진영에서는 ‘대세론’ ‘역전론’ ‘접전론’ 등을 내세우며 세 과시에 나서고 있다. 박-문 후보는 4일 KBC 광주방송 TV토론에서 물 문제 등을 놓고 또 한차례 격돌하는 등 물 파동의 여진 속에서 최종 승부의 ‘열쇠’를 쥔 호남 당심을 결집을 위한 막바지 여론전도 뜨겁게 전개했다. 박지원 후보 진영에서는 이미 판세가 역전된 상황에서 경선 물 파동으로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역풍이 강하게 불면서 ‘반문재인 전선’이 강하게 형성, 승기를 잡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호남과 비노 진영은 물론 그동안 광명세를 보였던 중도 성향의 당심도 박지원 후보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 진영에서는 남은 경선기간 동안, 경선 물 파동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반문재인 정서의 극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대세론이 굳어졌다”는

새정치 전대 D-3 대의원 표심잡기 지역 위원장들 조직역량 총동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제치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를 차지한데 힘입어 대세론이 공고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선을 파동으로 인한 비박 민심 및 당심의 동요도 거의 없고 오히려 문 후보의 우세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인영 후보 진영에서는 경선 물에 둘러싼 극한경쟁으로 ‘빅2 불가론’이 퍼지면서 부동층 표심이 이 후보를 향해 쏠리고 있다며 극적인 역전론을 강조했다. 두 후보의 소모전이 계속되면서 ‘문재인도, 박지원도 싫다’는 정서가 강해지면서 결국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2위에 올랐으며, 1위와의 격차도 점점 줄

어지고 있다며 전당대회 당일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표심의 45%를 차지하는 대의원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지 대의원들을 전당대회 현장에 집결시키기 위해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국 지역위원장들의 대의원들에 대한 지지 오더를 확보하기 위해 막판 물밑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문 후보 측에서는 대세론의 영향으로 지역위원장의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박 후보 측에서는 비노 정세가 강해지면서 대의원들의 반문재인 정서가 결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막판 호남 민심의 흐름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체 대의원들의 상당 수가 호남 출신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남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강화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 패배한다면 당 대표로서의 상징성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다든 점에서 막판까지 당심의 뿌리인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일 오전 KBC광주방송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지원(왼쪽)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악수를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친박 ‘이빠진 호랑이’

**비박, 새누리 지도부 장악 연일 靑 향해 쓴소리
친박, 서청원·이정현 최고위 회의 불참 몸뚱이**

새누리당 내에서 비주류가 당 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한동안 내재했던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비주류 측이 원내대표 경선 승리 이후 그동안 자제해왔던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내자 친박(친박근혜) 주류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원내수석부대표에 당내에서 ‘친이계(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재선의 조해진 의원을 내정했다. 친박계가 임명될 것이라 예상을 벗어났다 또다시 비주류가 지도부 일원이 된 것이다. 여기에 ‘김무성·유승민’ 투톱체제는 현 정부의 복지 기조와 인사 문제, 당·정 관계 등에 대한 일대 쇄신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또 비주류 친이계인 심재철·정병국 의원까지 이날 열린 최고위회·중진 연

석회의에 참석, “중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기회가 왔다”며 현 지도부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반면 친박 주류 인사들은 “김무성, 유승민이 대통령이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친박 핵심인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중진 연석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유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처음 열린 당의 공식 행사였다. 주류 측에선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문제삼는 와중에 주류 측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이 나서 이를 반박하면 그야말로 여당 내 계파갈등이 정면 충돌로 치닫기 때문에 일단 몸을 낮춘 것이

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친박 일각에선 주류-비주류 간 갈등의 뇌관이었던 ‘K·Y 유교인’까지 다시 꺼내들 듯한 분위기가. 한 친박 의원은 이날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에 대해 “자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 비서실장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면서 “지금껏 의원 내각제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나”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있지 않은 ‘심사시 권력 비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청와대 비서관들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청와대를 ‘비정성적인 집단’을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친박 주류 측이 극각적인 대응 자세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왕당파’임에도 전당대회, 원내 지도부 선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주요 광역단체장 경선 등에서 참패를 거듭하면서 ‘이빠진 호랑이’로 전락, 반격할 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뼈아픈 현실을 절감한 주류 측은 당분간 비주류 지도부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부산지역 지방의원 10여명 “박지원 지지”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산지역 일부 지방의원이 4일 당대표 선거와 관련, 박지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부산 사하구 의회 오다경 부의장을 비롯한 지방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러운 전당대회 물 변경에도 경선을 끝까지 치르겠다”는 박 후보의 구당적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당권과 대권은 분리돼야 한다”며 “문재인 후보가 당권과 대권에 모두 도전하는 것은 부산지역을 어렵게 하고

다. 창당 준비위원회는 정 전 의원과 새정치연합을 동반 탈당한 최구식 임종인 김성호 전 의원과 유일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이 동참한다. 양측은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3곳의 모든 선거구에 독자후보를 낸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야권 세력 교체에 기여하고 서민 대표성, 전문성, 정책능력을 겸비한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문 후보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후보 진영 관계자는 “당심은 박지원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위한 막판 당심의 결집으로 승리를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모임’ 창당 준비위 12일 발족... “천정배 합류 기대”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진노와 비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신당추진체인 국민모임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야권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전 의원은 국민모임에 공식 합류한데 이어 국민모임 공동대표인 김태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신당 추진위원들과 회동, 12일 신당 창당 준비위를 발족시키는데 합의했다.

김성호 전 의원은 정당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창당준비위 구성과 보선 공천 시기과 관련해 “준비위 구성 이후 며칠 내에 할 것”이라며 “보선 후보도 3월 중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천정배 전 의원의 국민모임 합류 가능성과 관련, 국민모임 측에서는 “천 전 의원의 합류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천 전 의원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다. 창당 준비위원회는 정 전 의원과 새정치연합을 동반 탈당한 최구식 임종인 김성호 전 의원과 유일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이 동참한다. 양측은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3곳의 모든 선거구에 독자후보를 낸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야권 세력 교체에 기여하고 서민 대표성, 전문성, 정책능력을 겸비한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 4월 보선 출마키로

오병운 “광주 서울 긍정 검토”
지난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전 자신들의 지역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4·29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보선은 여당 후보와 복수의 야권 후보가 출마하는 ‘일대다(多)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두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 관악을(이상규), 성남 중원(김미희) 보선 출마를 선언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과 소속 의원들의 의회직 상실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번 보선 출마의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병운 전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주 서구를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 전 의원은 4일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며 “설 연휴 이전에 입장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출마한다면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으로서가 아닌 지역의 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통한 ‘시민후보’ 성격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071)	광주교육대학교(1171)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5. 3. 6(금) 08:10 (토급반) ·금요일 오후반·2015. 3. 6(금) 14:10 (토급반) ·토요일 오전반·2015. 3. 7(토) 08:10 (토급반)	·월요일 오후반·2015. 3. 2(일) 14:10 (토급반) ·월·목·토요일·2015. 3. 2(일) 19:00 (토급반) ·목요일 오전반·2015. 3. 5(목) 14:10 (토급반) ·토요일 오후반·2015. 3. 7(토) 14:10 (토급반)
모집기간	2015. 1. 23(금)~3. 7(토)	2015. 1. 23(금)~3. 7(토)
수업기간	2015. 3. 6(금)~2015. 8. 15(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3. 2(일)~2015. 8. 15(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8: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8:10-13:00 · 오후반 14:10-18:00 ·어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행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교 후 교육연구소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행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교 후 교육연구소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문의처	·문 의:0621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문 의:0621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전망과 전라남도 미래가치 분석

부동산 최고 실무 전문가 김영표 대표의 확실하게 성공하는 부동산 성공투자 비법!!

장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5. 2. 6(금)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 광주·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투자처 매물분석 및 공개
2. 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3.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4. 부동산 취사(取捨) 선택전략 - 돈드는 부동산 선택요령 10개명

1부 김하현 교수
·목포대학교 법학박사
·대법대학교 경영학 박사
·공인중개사 총연맹 중앙위원
·전국부동산 전문상담 운영
·부동산 칼럼연재(각 신문사 및 기간)

2부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컬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

광주·전남지역 법률고문 모집 공고

- 1. 공모인원** : 5명 이내
※ 법무법인은 구성원 중에서 파트너급 변호사 122인을 포함한 전담 변호사 3인 이상을 지정하여 응모
- 2. 위촉내용**
□ 위촉기간 : 위촉일 ~ 2015. 12. 31.
□ '15년 말 고문업무 수행실적' 평가를 거쳐 2년간 재위촉 가능
□ 직무내용 : 당사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의 대리 등
□ 보수 : 월정 보수 없음(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에 따라 건별 지급)
- 3. 지원자격**
□ 자격기준
○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무 법인(유한)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안·검사 등 변호경력 포함) 5년 이상인 자
□ 결정사유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명 : 10년, 정직 : 7년, 과태료 : 5년, 견책 : 3년
○ 공직피임변호사로서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함
- 4.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지원서 등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 (면접 또는 PT 없음)
□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경력, 전문성, 청렴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2. 4.(수) ~ 2. 1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처 : 한국전력공사 법무실
(우.520-350 전남 나주시 권력로 55)
※ 우편접수시 결봉에 "법률고문 지원서 제출" 반드시 명기
- 6. 제출서류**
□ 개인변호사
○ 법률고문 지원서(당사 소정양식)
○ 청렴서약서(당사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호사 자격 또는 경력증명서
○ 판·검사 경력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정계정명령
□ 법무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전담변호사 3인 이상에 대한 위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 전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7. 유의사항**
□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당사 「법률고문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모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통지합니다.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작성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일체 당사 내방을 받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고문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법무실 천세웅 차장(☎ 061-345-4611)
□ 문의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첨부) 1. 법률고문 지원서(개인, 법인) 양식 1부.
2. 청렴서약서 양식 1부.
3. 법률고문 운영지침 1부.
※ 《첨부》 법률고문 지원서·청렴서약서 서식 및 법률고문 운영지침은 우리회사 홈페이지(kepco.co.kr)의 「공시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2015년 2월 5일
한국전력공사 사장